연변, 2년 련속 '중국 아름다운 생활 도시' 선정

연변이 2년 련속 '중국 아름다운 생활 도시'에 선정되였다.

5월 21일, 2023년—2024년도 '중국 아름다운 생활 대조사' 데이터 발표 야회가 사천성 성도시에서 성황리에 거행된 가운데 연변이 '중국 아름다운 생활 도시—올해의 아름다운 변모 도시' 명단에 올랐다.

현장에서는 수십만명 대중들이 참여한 '중국 아름다운 생활 대조사'와 관련된 대중 소비 이슈, 려행 의지, 혁신창업 동태, 인공지능 추세 및 도시 만족도 등 여러가지 중요 수치를 발표함과 아울러 대중들 마음속의 '중국 아름다운 생활 도시' 명단을 발표했다.

'중국 아름다운 생활 대조사'는 중앙라지오텔레비존방송총국, 국가통계국, 중국우정그룹유한회사, 북경대학 국가발전연구원이 2006년에 련합으로 발기한 것으로 이미 18년간 이어져왔다. 해마다 국내 150여개 도시, 300여개 현의 10만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데 세계 최대 규모의 민생 감수형 조사이다.

'중국 아름다운 생활 대조사'의 다차원 조사 데이터에 근거해 연변, 천수, 개봉, 할빈, 치박 등 도시가 년도 아름다운 변모' 도시로 선정되였다. 연변은 지난해 중국 아름다운 도시— 10대 매력 도시'에 선정된 데 이어 올해도 '중국 아름다운 생활 도시'에 선정되였다.

야회에는 20개에 가까운 도시의 대표들이 모여 도시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도시의 독특한 매력을 전시했다.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정부 부주장 윤조휘가 행사에 참가해 연변의 도시 매력과 문화관광자원을 소개했다.

야회는 CCTV와 여러 입선 도시의 주요 온라인 플래트홈을 통해 전 과정이 생중계되였다. 연변은 무작위로 추첨된 10명 온라인 관중에 연변 주요 풍경구 입장권, 숙박 체험 카드, 민속공연 관람권 등 푸짐한 문화관광 선물세트를 선사했다.

행사 기간, 몰입식 문화창의시장 '아름다운 생활 좋은 물품 장터'가 성도 쌍류에서 개장해 여러 아름다운 생활 도시의 무형문화유산 및 문화창의 제품들을 전시했다. 연변은 무형문화유산인 장고춤과 상모춤, 아름답고 정교한 문화창의 제품 및 특색 민속음식 등 많은 '좋은 물품'으로 성도 시민과 언론 기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킴으로써 전방위적이고 다각도로 연변 도시 문화의 깊은 내포와 독특한 매력을 선보였다.

/ 리전기자
/ 사진 CCTV 재경채널

연길시법원, 전국에서 가장 '투명'한 기층법원으로

5월 20일,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에서 조직, 편찬한《법치청서·중국 법치 발전보고》제22권이 북경에서 발표, 중국사회과학원 국가법치지수연구쎈터가 10여년간 지속적으로 전개해온 사법 투명도 지수 보고 등 내용을 게재했다. 그 중〈중국 사법 투명성 지수 보고서 (2023)－법원 웹사이트 정보 공개를 시각으로〉에 따르면 2023년 사법 투명성 지수 순위에서 연길시인민법원이 전국 기층법원 1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연길시인민법원은 3년 련속 전국 기층법원 순위 5위권에 들었다.

최근년간, 연길시인민법원은 시종 '공정과 효률' 사업 주제를 둘러싸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사법 리념을 견지하고 개방, 동태, 투명, 편민의 양광사법기제를 구축하는 것을 둘러싸고 봉사의식을 증강하고 봉사수준을 제고하며 정보화 건설을 버팀목으로, 집약을 수단으로, 재판관리를 의탁으로 립건, 재판, 집법 일체화 사업기제를 끊임없이 모색하고 보완하여 재판사업의 현대화를 힘써 추진했다.

원스톱 소송써비스를 심화했다. 전자 소송써비스를 핵심으로 홀, 열선, 네트워크, 모바일 써비스, 전역 원스톱, 한개 사이트 원스톱의 전 과정 업무 소송써비스의 새로운 모델을 형성하고 점심시간 립건, 피고인 주소지 조회, 립건 용량 결핍 접수, 타지역 비용 반환 심사비준, '법관과 당사자의 소통을 강화할 데 관한 9가지 의견' 등 기제를 통해 대중의 다원화된 소송써비스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다. 당사자의 소송 시간을 절약하고 소송원가를 낮추기 위하여 립건대청 창구에 '보전보험창구'와 '공증창구'를 설치하고 소송문서 QR코드 링크를 설치했으며 각종 편리한 봉사로 대중이 적게 뛰여다니도록 했다.

2022년, 연길시인민법원은 청년간부, 경찰간의 소송지도 당번제도를 출범하여 기존의 소송지도원에 기초하여 청년 법관 간부, 경찰을 파견하여 소송안내대에서 륜번으로 당직을 서게 하고 법원 도착 사무지침, 소송절차 자문, 사건정보 조회, 무료 편민 복사 등 봉사사항을 담당하게 했다. 이는 일선에 내려간 청년 간부, 경찰들의 사회적 책임감을 증강시켰을 뿐만 아니라 더우기는 당사자들이 더욱 량질적이고 능률적인 소송봉사 체험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당사자의 서류 열람, 조회 불편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연길시인민법원은 서류조회 기능을 앞으로 옮기고 기소안내대에 서류조회 창구를 증설했으며 또 외지 당사자들을 위해 타지방 서류 수집 써비스를 개통하여 대중의 다원화된 사법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2023년 5월, 연길시인민법원은 재판보조사무집약쎈터를 설립했다. 재판보조사무집약쎈터는 립건정의 소속부문으로서 기한 배정, 송달, 공고, 스캔 등 재판 보조사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한다. 당사자의 소송 정보 알권리(知情权)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재판보조사무집약쎈터는 매주 사법공개넷에 법정심리 기한 배정을 공개하고 공고 정보를 공고한다.

재판보조사무집약쎈터는 통일적으로 기한을 정하고 통일적으로 소환장을 제작하며 소환장에 사건 담당 법관의 성명, 전화, 정무위챗 QR코드, 재판보조사무집약쎈터 련락전화를 첨부하여 소송하러 온 군중들이 제때에 사건 정보를 료해하고 문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사자가 법에 의해 재판활동에 참여하고 재판사업 정보를 알 수 있는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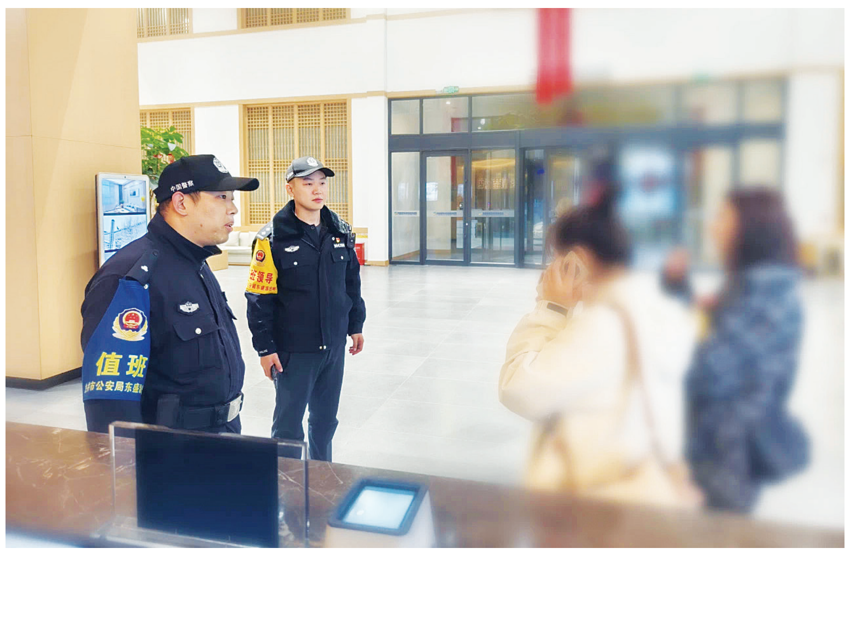
사법공개를 심화하고 사법공정을 촉진하는 것은 인민법원의 장기적인 임무이다. 연길시인민법원은 이동 상호 련결 환경에서의 사법공개의 새로운 경로를 적극 모색하고 사법공개 플래트홈 건설, 제도기제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사법공개의 폭과 깊이를 끊임없이 확대하고 사법공신력을 제고하여 눈에 더욱 잘 보이는 공평과 정의로 법치의 '바탕색'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기자가 정리해 본 데 따르면 2023년 사법 투명성 지수 순위(부분적인 기층법원) 앞 11위까지에 연길시인민법원외에 장춘시조양구인민법원이 3위, 송원시 전고르로스몽골족자치현인민법원이 7위, 송원시 녕강구인민법원이 8위를 하는 등 길림성의 4개 기층법원이 선정되였다.

2022년의 순위에서는 장춘시 조양구인민법원과 연길시인민법원, 송원시 녕강구인민법원, 송원시 전고르로스몽골족자치현인민법원이 각각 1, 2, 3, 4위로 절대적인 우세를 자랑했으나 지난해 상술한 4개 법원 순위가 엇바뀌였다.

/ 유경봉기자

룡정 경찰, 산속에서 길 잃은 캠핑객 호텔까지 무사히 데려다줘



룡정시공안국 동성용진파출소는 '경찰과 지방의 통합' 및 '경찰과 인민의 통합' 사업방침에 따라 실제 행동으로 군중들의 긴급한 문제를 해결해줌으로써 경찰과 대중 사이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최근 동성용진파출소는 외지 관광객 2명이 캠핑후 호텔로 돌아가는 길을 잃었다는 관광지의 신고를 받았다. 동성용진파출소는 신고를 받자마자 신속히 출동해 신고자가 제공한 표지성 건축물에 근거하여 대략적인 구역을 추적, 5분 만에 길을 잃고 헤매는 관광객을 찾아 호텔로 무사히 데려다줬다.

료해에 따르면 두 사람은 캠핑이 끝난 뒤 내비게이션의 안내에 따라 호텔 쪽으로 갔는데 늦은 밤인 데다 길이 익숙치 않아 잘못 들어섰고 나중에 길을 잃게 되였다. 다행히 마을에 설치된 파출소의 경찰 련락 카드를 보게 되였고 파출소에 구조 요청을 한 덕에 다시 호텔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

룡정시공안국 동성용진파출소 경찰은 "곤난에 처할 경우 적시적으로 련락하면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실습생 김성보
/ 사진 동성용진파출소

길림성 국가석유가스관선 안전수호 실전훈련 전개

5월 21일, 길림성공안청은 장춘시공안국, 국가관망그룹 동북지사, 길림성가스전및송유관안전보호련석회의 성원단위들과 공동으로 '호위－2024' 길림성 및 장춘시 국가석유가스관선 안전수호 실전훈련을 전개했다.

알아본 데 따르면 '경찰과 지방의 융합, 정부와 기업의 공동건설'을 리념으로 진행된 이번 훈련은 경찰과 기업간의 련합근무출동 기제를 한층 더 건전히 하고 보완하며 관련 부문 사이의 협동작전 능력을 제고하고 국가 에너지안전을 확실하게 수호하기 위한 데 취지를 두었다.

이번 훈련은 성내 송유관선시설의 안전을 수호하는 것을 배경으로 송유관선에 구멍을 뚫어 기름을 훔치는 범죄무리를 타격하고 화재를 박멸하며 관망시설을 긴급 보수하는 등을 둘러싸고 종합실전응급훈련을 전개했다. 훈련 과목은 실전에 근접하여 공안, 소방, 국가관망, 의료 등 부문단위가 '사건(案件)'과 '돌발사건'을 발견한 후 신속히 행동하고 분공협력해 제때에 처리하여 량호한 훈련 효과를 거두었으며 이로부터 관련 단위의 통일적인 지휘, 련합작전, 쾌속반응 능력을 한층 더 련마하고 검증했다.

최근년간 길림성공안청은 시종 석유가스 장거리 수송 도관의 안전 보호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관련 기업과 힘을 합쳐 협력하여 공동건설, 공동관리, 련합예방통제를 추진함으로써 길림성 석유가스 장거리 수송 도관의 안전을 유력하게 수호했다. 다음 단계 사업에서 길림성공안청은 임무가 명확하고 조률이 원활하며 반응이 빠르고 처리가 과학적인 정부 응급처리기제의 구축과 건전화를 추진하고 전방위적인 예방처리 예비안을 개정, 보완하며 무인기 등 기술의 전천후 동태 감시측정 조기 경보를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공중과 지면 립체순방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사업단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찰 관할구역 + 격자', '경장 + 보위', '인력 + 기술' 련합방지행동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전 성 공안기관을 조직하여 단서의 심층적인 발굴과 정보 스마트 연구판단을 강화하고 석유가스, 송유관과 관련된 위법범죄활동을 호되게 타격하며 위험 우환에 대한 조사 정돈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도관 연선의 석유가스 안보 선전교육을 강화하여 전방위적이고 립체화된 석유가스전 송유관선의 안전 방호 장벽을 적극 구축하게 된다.

/ 유경봉기자

'로정관리 선전의 달', 연길 도로안전에 만전 기해

올해 5월은 제10회 전국 '로정관리 선전의 달'이다. 길림성교통운수종합행정집법국 연길분국은 '교통집법 + 봉사'를 목표로 특색 있는 로정관리를 힘써 구축하여 연길 관광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 고효률의 지지와 강력한 보장을 제공하고 있다.

연길분국은 도로 순찰을 강화하고 훈춘－울란호트 고속도로, 연길－룡정 고속도로, 연길－장춘 고속도로, 목단강－연길 고속도로에 대해 전면적인 우환 조사를 진행하여 량호한 도로 통행을 확보하고 있다. 동시에 순찰일군을 배치하여 수금소, 진입로 등 차량 류동량이 큰 구역에서 당직을 서고 교통경찰부문을 협조하여 차량을 인도하고 교통을 통제하며 운행 압력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도로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전력으로 보장하고 있다.

'교통집법 + 봉사' 발전의 새로운 모식을 적극 모색하여 수금소광장, 휴계소 등 구역에서 교통안전에 관한 선전, 강연을 전개하고 오가는 화물차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며 운전자에게 제한과적운송 등 교통위법행위의 위해성에 대해 설명했다.

법률보급선전소분대를 설립하고 연길시 건공가두 연동사회구역과 함께 중국조선족민속원에서 '관광지에 법률지식 전달' 활동을 전개했다. 관련 사업일군들은 현수막을 설치하고 법률보급 선전책자를 배포하며 현장에서 시민들의 의문을 해결해주는 등 다양한 형식으로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관련 법률법규를 보급하여 법률보급 선전의 짙은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번 활동에서 각종 선전책자 100여권, 법치문화 선물 60여부를 배포하고 연인수로 20명에 달하는 각종 법률자문에 해답을 주었다.

연길분국 관련 책임자는 "'사람마다 도로를 보호하고 도로가 원활하면 마음도 상쾌하다'란 슬로건을 내걸고 로정관리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집법 효능과 집법순찰 능력을 제고하여 관광객들에게 량질의 교통집법봉사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안전 출행을 담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현관기자